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李宗準 醫案에 대한 연구

김재은 · 최달영 · 정한솔¹ · 신현종² · 신상우¹ · 하기태^{1*}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응용의학부, 2: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병리학교실

Study on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in *Sinsuntaeeuljagumdan*

Jae Eun Kim, Dall Yeong Choi, Han Sol Jeong¹, Hyun Jong Shin², Sang Woo Shin¹, Ki Tae Ha^{1*}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1: Division of Applied Medicine, School of Korean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ath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Sinsuntaeeuljagumdan is a medical book written by Jong-jun Lee, who was an government official in Yonsan-gun period in Chosun dynasty. This book has importance in medical history, as it was the first privately published medical book in early Chosun dynasty, and written by an bureaucratic gentry, not by a professional doctor. Three versions of this book remain, among which Sungam version is printed and closest to the original, while Kyoto version is facsimile manuscript of the Sungam version. The contents of the book can be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i.e. constituents and making instructions, applicable symptoms and administration directions, and medical records and episodes. The medical records, of these three sections, are total 8 cases, with a great value as the first ever medical record in Korean history.

Key words : *Sinsuntaeeuljagumdan*(神仙太乙紫金丹), Jong-jun Lee(李宗準), Medical record(醫案)

서 론

『神仙太乙紫金丹』은李宗準이燕山君 3년(弘治 丁巳; 1497)에 민간에서 간행한 醫書로¹⁾ 현재 국내의 誠菴古書博物館(이하 성암본으로 약칭)²⁾, 韓獨醫藥博物館(이하 한독본으로 약칭)³⁾과 일본의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하 교토본으로 약칭)⁴⁾에 소장되어 있다. 세 가지 傳本은 모두 그 내용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나 성암본은 刊本이고 한독본과 교토본은 筆寫本이라는 점, 題名이 성암본과 한독본은 『神仙太乙紫金丹』, 교토본은 『紫金丹方』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저자인李宗準은 조선시대의 문인 관료로서 字는 仲鈞, 號는 慵齋이며 생년은 미상이지만 金宗直의 제자로 연산군 4년(1498)의 戊午土禍로 鞠殺당하였고 한다¹⁾. 東洋醫學大辭典에는 이 책을 중국의 『太乙紫金丹方』을 해석하고 이것에 이해를 붙여 간행한 것⁵⁾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太乙紫金丹方』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책의 내용은 조선후기에 『東醫寶

鑑』, 『濟衆新編』, 『山林經濟』 등의 서적에도 인용되었으며⁴⁾, 우리나라 의학사상 최초로 官撰이 아닌 민간에서 출판된 의서라는 점과 전문 의사가 아닌 문인 관료가 쓴 醫書라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한의학계에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인문학계에서 안병희의 영인 및 해제 작업^{1,2)}과 정우영의 국어학적인 연구⁶⁾가 진행되었으며, 최근에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簡易辟瘟方』, 『新纂辟瘟方』과 합하여 역주본을 출간(이하 역주본으로 약칭)하였다⁷⁾.

저자 등은 우리나라의 醫案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는 과정⁸⁻¹¹⁾에서 안병희가 影印하여 소개한 성암본 원문²⁾을 접하게 되었으며, 책의 末尾에 수록된李宗準의 개인적 치험례가 최초의 한국 의안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⁹⁾. 이에 필자는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李宗準의 醫案에 대하여 정리 보고함으로써 앞으로의 醫案에 대한 연구 및 교육에 대하여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론

1. 저자李宗準에 대하여

『神仙太乙紫金丹方』의 저자인李宗準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 교신저자 : 하기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E-mail : hags@pusan.ac.kr, · Tel : 051-510-8464
 · 접수 : 2011/01/31 · 수정 : 2011/03/14 · 채택 : 2011/03/28

가 그리 많지 않다. 안병희의 해제¹⁾에 간략한 전기가 부기되어 있을 뿐이고,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펴낸 김문웅의 역주본²⁾에서도 특별한 내용이 없이 안병희의 전기를 인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조선왕조실록홈페이지¹²⁾를 검색한 결과 그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기록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내용을 아래의 Table 1으로 정리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중에서李宗準의 가계에 대해서 나타난 내용은 2, 14, 15, 30번 기사이다. 특히 2번 기사에는 요즘의 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에 해당하는 署經을 司諫院이 거부하는 사태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호하는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李宗準의 선대 가계의 내력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李宗準의 祖父는 세종 때 大司憲을 지낸 李繩直이었는데, 伯父인 李命敏이 계유정란에 연루되어 誅殺되고 異母弟였던李宗準의 부친 李時敏도 연좌되어 禮安縣에 定屬되었다가 세조 4년 戊寅(1458)에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갔고, 성종 3년 壬辰(1472)에는 仁粹大妃의 칠촌이라는 이유로 放免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왕조실록 내용에서 仁粹大妃와의 구체적인 인척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50일 이내에 署經을 하지 않으면 관원으로 취임할 수 없었기 때문에李宗準로서는 出仕의 초반부터 만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친인 李時敏이 放免을 얻을 때에 자신이 태어난 지 3개월의 어린아이였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생년이 정확하지 않다고 본 안병희의 기록¹⁾은 부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상소문의 내용 중에서 “戊寅, 世祖大王原情恕罪, 特命臣父, 自願從便, 還于安東. 壬辰. 以仁粹王大妃七寸, 特蒙天恩, 乃得免放, 再觀天日之光. 其時, 臣生孩三月, 方在襁褓.”라고 하여 생년이 성종 3년 壬辰(1472)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逮臣父蒙宥之後, 臣亦尋蒙聖恩, 僥倖於丁酉監試, 叨竊於乙巳親試, 始免戴盆之困, 獲遂拔雲之觀.”이라고 한 것과 비교하면 겨우 5세에 불과한 나이에 監試에 합격하고 19세인 乙巳(1491)년에 親試에 합격한 것이 된다. 연령이 지나치게 어리다는 문제뿐 아니라, 본인이 “及其長壯, 仍赴試闈, 則有司以臣父未放之前, 故不許錄名. 以此低回踈伏, 辛勤田畝, 且讀且耕者, 已八九年矣.”라고 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李宗準의 생년은 부친인 李時敏이 풀려나 안동으로 돌아간 1458년에 태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며, 14세 이전에 과거장에서 錄名을 하지 못하여 8-9년을 실의에 빠져 살다가 19세에 監試, 27세에 親試에 합격하여 32세인 1490년에 成均館 典籍이란 관직에 처음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4, 15번 기사에는 무오사화의 주범자인 金駟孫과 權緯이 주고받은 詩 문제로 연루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權緯이

Table 1. Documents about Jong-jun Lee in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연월일-기사	당시 관직	기사내용
1 1490.12.24-3	成均館典籍	충청좌도에 벼락 맞고 죽은 사람이 있음을 아뢰
2 1491.1.17-2	成均館典籍	李宗準의 上疏 - 시간원의 署經 거부가 부당함
3 1492.1.24-2	慶尙道都事	掌令 李瑑가 이종준의 청탁 연루를 아뢰
4 1492.3.25-4		문신 증 兼 宣傳官으로 발탁
5 1493.3.23-1	司憲府持平	承議司憲府持平으로 승진
6 1493.4.11-3	司憲府持平	鄭誠謹, 崔溥(『漂海錄』 저자)에 대하여 탄핵
7 1493.8.23-1	聖節使質正官	중국 使行 준비
8 1493.9.5-3	聖節使質正官	중국 使行 준비
9 1493.11.6-2		律文에 밝은 문신으로 발탁
10 1493.12.28-3		김심 등의 劄子 - 慶尙道監司 이극돈, 都事李宗準이 간행, 진상한 《유양잡조》 등이 괴탄과 불경하다
11 1497.11.16-4	義城縣令	이극군과 경상도 지도에 대해 의논 - 경상좌도의 지도는 이종준이 제작
12 1498.7.13-1		무오사화 연루 - 김일손의 공초
13 1498.7.13-2		김일손의 공초
14 1498.7.19-3		이종준의 공초(장인 權緯의 문제로 연루)
15 1498.7.25-8		김일손의 공초
16 1498.7.26-4		윤필상 등의 서계 - 봉당죄로 丈80에 유배 결정
17 1498.7.26-6		윤필상 등의 서계 - 富寧으로 유배 결정
18 1498.7.27-1		무오사화의 처리를 종묘 사직에 알림
19 1498.11.11-1		함경도 관찰사 李承健의 啓 - 麻谷驛 壁詩사건의 고발
20 1498.11.17-1		宗親인 茂豊正 李撻과 함께 서울로 압송
21 1498.11.17-2		이종준의 공초
22 1498.11.19-3		이총을 고문
23 1498.11.25-2		이종준과 이총을 고문
24 1498.11.28-2		이종준의 도피사도 제기, 유자광을 함경도로 파견 조사
25 1498.12.19-1		유자광의 복귀, 이종준을 고문, 도피사도 불복
26 1499.1.24-1		연산군이 정미수에게 이종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명함
27 1499.2.25-2		이총을 서인으로 삭적, 그 자손도 그에 따르게 함
28 1499.3.1-1		정미수의 변호, 연산군의 용서 거부
29 1499.3.2-5		홍귀달의 변호, 연산군이 증벌에 처할 것을 명
30 1509.7.1-2		의금부가 이종준의 집에 가산을 돌려주는 일을 아뢰 (推案에 ‘斬, 籍沒’, 죄명은 無)
31 1509.7.3-2		의금부가 이종준의 죄명을 상고할 근거가 없으니 일기청을 상고하자고 아뢰
32 1509.7.3-3		일기청이 이종준의 죄명이 불명확하다고 하여 중종이 적절한 가재를 돌려주라고 명함
33 1518.4.8-1		사헌부가 이승건의 아들 李謙을 탄핵, 중종이 거부
34 1518.4.10-3		중종이 이종준의 壁詩를 보고, 이승건의 죄를 묻음
35 1673.1.3-1		이종준의 추증 논의, 현종이 贈職하라고 함

바로李宗準의 장인이다. 또한 30번 기사에는李宗準의 아들인李德璋의 上言으로 의금부에서廢主人燕山君 때 죄를 입은 사람의 가산을 돌려주는 작업에 착수하였다는 기사가 나온다. 또한 도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종 3년 임진(1472)의 5월 24일 3번째 기사에는扶餘에永屬한李命敏의 아우李靡敏을 풀어주었다는 기록과, 세조 14년 무자(1468)의 9월 6일 3번째 기사에는李命敏의 조카李孟準, 李銀同, 李銀哲, 李興祖, 李榮祖, 李哲同, 李煥昇, 李年同, 李末孫, 李吾乙, 李末同, 李芴叱同, 李仲同을 방면한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조사하던 중 한국국학진흥원의 유교넷(<http://www.ugyo.net/>)의 鏡光書院 항목에서 『慵齋訥齋兩先生遺稿』라는 책을 찾았으며¹³⁾, 거기에李宗準의 자세한世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世系圖에서李宗準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의 Fig. 1에 표시하였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들과 『慵齋訥齋兩先生遺稿』의世譜에 의거하여李宗準의家系圖를 그려보면 아래의 Fig.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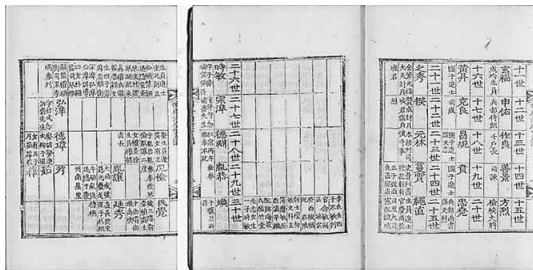


Fig. 1. A part of genealogical table in *Posthumous manuscripts of two master, Yongjae and Nulj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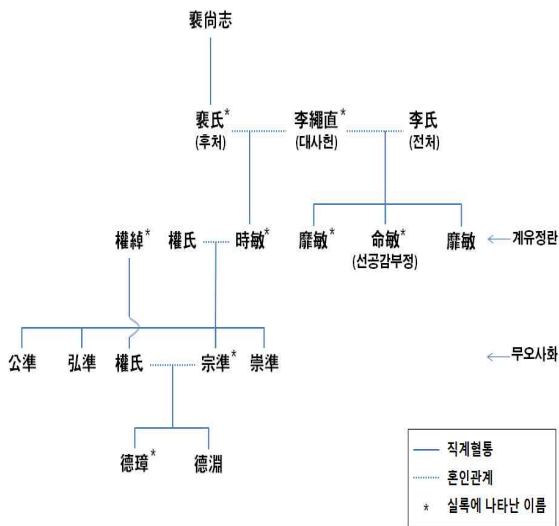


Fig. 2. Pedigree chart of Jong-jun Lee's family according to *Annals of the Chosun dynasty* and *Posthumous manuscripts of two master, Yongjae and Nuljae*.

이상에서 정리한 것으로 살펴보면, 이종준의 가계는 祖父인李繩直 때까지는 서울에 거주한 훈구세력이었으나, 父親인李時敏 때부터 안동으로 근거지를 옮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처의 소생이기는 하지만 伯父인李命敏이 세조의 篡位에 반대하였다가 계유정란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하고 滅門의 위기까지 갔다가,

성종의 사면으로 복권되고李時敏의 둘째인李宗準이 과거에 합격하여 出仕함으로써 집안을 다시 일으키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李宗準은 金宗直 등과 師承 관계를 가짐으로써 사림과의 일원이 되었다. 成均館典籍, 慶尙道都事, 司憲府持平, 義城縣令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출세를 하다가 세조의 篡位를 비판한 金黼孫의 사초로 촉발된 무오사화에 金宗直의 門徒라는 것과 장인인 權紳이 김일손과 칭찬하는 시를 주고받아 봉당을 이루었다는 혐의로 연루되어 丈80에 富寧으로 유배되었다. 유배지로 가던 중에 端川 麻谷驛의 벽에 宋의李師中이 唐介를 송별하는 시를 적은 것이 함경도 관찰사李承健에 적발되어 宗親인 茂豊正 李摠과 함께 서울로 압송되어 문초를 받고 참형에 처해졌다. 사망년도에 대해서도 안병희는 1498년이라고 하였으나¹⁾, 1499년 3월 1일과 2일에 정미수와 홍귀달이李宗準을 변호한 기록으로 보아 1499년 3월경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Table 1, 기사 19, 33) 문제가 된李師中의 시는 “孤忠自許衆不與, 獨立敢言人所難. 去國一身輕似葉, 高名千古重於山. 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 天爲吾皇扶社稷, 肯教吾子不生還”로서, 특히 “竝遊英俊顔何厚, 未死奸諛骨已寒”라는 구절이 무오사화 당시 士林派를 몰아낸 훈구세력과 燕山君에게 문제시 된 내용이다. 비록 자신이 죄를 벗기 위해서李摠을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졌지만, 중종 때가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1509년 7월 1일의 기사에서 보듯이 ‘斬, 籍沒’이라는 중형에 비하여 죄명이 기록에 없다는 점과廢主연산군 시대의 정치에 대하여 古詩를 빌어 비난한 점 때문에 그 아들李德璋에게 가산을 돌려주라고 하였다. 오히려 33, 34번 기사에서 보듯이李宗準을 고발한李承健과 그의 아들이 탄핵을 당하고 벌을 받는 등 형세가 역전되었다. 또한 顯宗 때인 1662년에는 안동의 鏡光書院에 조부李繩直의 장인인 裴尙志와 함께 배향되었으며¹³⁾, 35번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1673년에 이르러 追贈 논의로 贈職되는 등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졌다.

2. 『神仙太乙紫金丹』의 傳本 및 간행 경위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神仙太乙紫金丹』은 현재 3개의 서로 다른 傳本이 있다. 그 중에서 성암본과 교토본은 全文이 공개되어 확인할 수 있었고, 한독본은 김신근의 『한의약서고』³⁾에 인용된 앞부분의 내용만 확인이 가능하였다.

Fig. 3에서 보듯이 성암본은 목활자로 인쇄한 刊本이고, 한독본과 교토본은 성암본을 模寫한 筆寫本이다. 또한 題名이 성암본과 한독본은 『神仙太乙紫金丹』, 교토본은 『紫金丹方』으로 되어 있는 점이 다르지만, 한독본에 비하여 교토본이 성암본의 원형을 최대한 그대로 模寫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한독본의 경우에는 山茨菰의 그림이 매우 간략할 뿐 아니라 그 위치가 題名 뒤가 아니라 山茨菰의 설명 뒤에 붙어 있으며, 그림의 순서도 “長苗-開花-殘花……”가 아니라 “長苗-殘花-開花……”로 착오가 있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題名을 諺解한 것이 한독본에서는 빠져 있고, “唐陳自明……”으로 시작하는 紫金丹 처방에 대한 설명과 “今按……”으로 시작하는李宗準의 해설이 아예 누락이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刊本인 성암본과 비해서 차이가 매우 심

하다. 따라서 그림의 상대적인 위치까지도 정확하게 模寫한 교토본에 비하여 한독본은 판본상의 가치가 적은 것으로 사료되어 본 醫案 연구에서는 제외하였고, 성암본을 위주로 하고 교토본을 참고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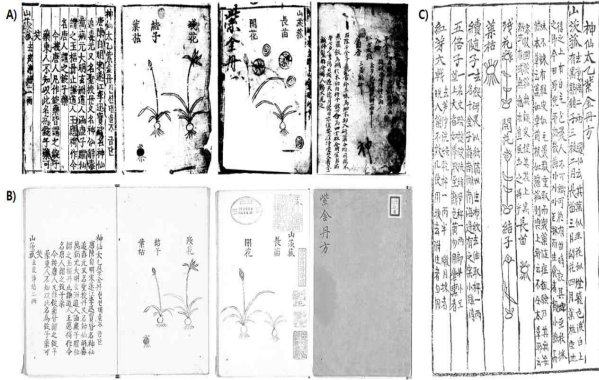


Fig. 3. Cover and fore part of *Sinsuntaeuljagumdan*. A) Sungam version, B) Kyoto version, C) Handok version

다만 안병희가 성암본을 해제, 영인하여 발표할 때에 그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원본이 佚失로 알려져 있었다¹⁾고 한 것과, 김신근이 『한의약서고』를 저술하면서 이 책의 원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京都大學圖書館(富土川本; 곧 교토본을 말함)에 소장되어 있다³⁾고 한 것은 둘 다 부정확한 것이다. 안병희가 성암본을 해제하기 1년 전에 이미 김신근의 『한의약서고』가 출판되었으며, 교토본은 刊本이 아니라 筆寫本이므로 한독본의 原本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류들은 당시에 人文學者들과 醫藥學者들이 서로 교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출판된 관련 서적조차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오류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 출판된 역주본⁷⁾의 경우에도 김신근의 『한의약서고』를 참고하지 않은 것과 번역 작업에 있어서 한의학 전공자의 참여가 전혀 없으며, 내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인 한문 원문에 대해서는 전혀 번역이나 주석을 하지 않고 諺解 부분만을 역주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다.

이 책의 간행 동기에 대해서李宗準은 醫案의 뒷 부분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Fig. 3 참조). “其餘患, 痲癩, 瘡腫, 癩癧, 得我而愈者, 甚多, 信乎! 在家出入, 不可無此藥也.”라고 하여 紫金丹의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가정 상비약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茲不可不傳, 且公鄉間, 彙集而求. 難以一一酬應, 乃書顛末, 并圖山茨菰, 入梓流布云.”라고 하여 약을 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책으로 편찬하여 간행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 의안에서도 본인이 직접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도 있지만 환자의 가족 등에게 주어 간접적으로 투여한 경우도 있었음을 볼 때,李宗準의 주위에서 이 약을 구하는 문의가 많았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皇明弘治丁巳端陽節, 節慵齋, 病叟, 李宗準仲鈞, 經驗刊施.”라고 한 刊記를 볼 때, 이 책은 1497년 단오절(음력 5월 5일)에 출판되었으며, 당시李宗準은 義城縣令으로 재직 중이었음을 Table 1의 11번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을 국가

차원에서 간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官版이 아닌 민간에서 간행한 醫書라고 할 수는 있지만¹⁷⁾,李宗準의 직책으로 보아 완전히 개인적인 私備로 간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Table 1의 10번 기사에서 보듯이 慶尙道都事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監司인李克墩과 함께 『유양잡조』 등의 책을 간행하여 進上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평소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출판 사업에 관여하였고 이 책의 간행에도 그러한 官의 시스템을 이용하였을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왕조실록에는李宗準의 醫學의인 소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문신이면서도 武才가 있었다는 점(4번 기사)과 律文에 밝은 문신으로 발탁되었다는 점(9번 기사), 경상좌도의 지도를李宗準이 제작하였다는 점(11번 기사) 등을 볼 때, 그의 학문이 단지 儒學과 文辭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식에도 평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神仙太乙紫金丹』의 구성에 대하여

『神仙太乙紫金丹』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암본을 기준으로 할 때 Table 2에 표시한 것과 같이 먼저 표지에서 제 19면의 “別具湯使于後”라고 한 부분까지를 처방의 구성과 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 20면의 “治一切藥毒……”으로 시작하여 37면의 “孕婦不可服”까지를 처방의 주치 증상과 복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喻良能云……”에서 끝까지를 이 처방에 대한 醫話, 醫案 및 刊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Construction of *Sinsuntaeuljagumdan*.

page	시작부분	끝부분	내용	諺解
1~19	표지	別具湯使于後	처방의 구성, 제법	일부 있음
20~37	治一切藥毒	孕婦不可服	주치 증상과 복용법	다량 있음
37~42	喻良能云	끝	醫話, 醫案 및 刊記	없음

먼저 첫 부분을 살펴보면 “唐陳自明、宋遂江李迅寶, 皆名神仙追毒元, 又名聖授丹, 又名神仙解毒萬病元. 大明玄洲道人涵虛子驪仙謂之玉樞丹, 止兼道人王應禱作今名. 唐人謂之錠子藥. 今按唐人凡作錠藥, 皆謂之錠子藥. 東人不知以此名爲錠子藥, 可笑.”라고 하여, 이 처방이 唐代부터 내려왔으며 神仙追毒元, 聖授丹, 神仙解毒萬病元, 玉樞丹 등으로도 불렸음을 알 수 있다. “神仙太乙”이라는 용어는 김신근의 해설처럼 단순히 “실제로 사용하여 경험한 다음 그 약방을 칭송하는 뜻에서 神仙이라는 글자를 加³⁾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 처방의 연원이 神仙, 太乙이라는 용어를 좋아하는 道家 계열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한다. 특히 이 처방을 玉樞丹이라고 부른 玄洲道人 涵虛子 驪仙은 明太祖의 16번째 아들로 寧憲王에 봉해진 朱權을 말하며, 우리나라에도 退溪 선생의 『活人心方』의 原作者로 잘 알려져 있다¹⁴⁾.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紫金丹이라는 현재의 이름을 지었다는 止兼道人 王應禱는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道人이라는 호칭을 볼 때 그 또한 道家 계열의 인물로 추측된다.

『東洋醫學大辭典』에는李宗準의 『神仙太乙紫金丹』에 대하여 “중국의 『太乙紫金丹方』을 해석하고 이것에 언해를 붙여 간

행한 것⁵⁾이라고 하는데, 의학사적으로 중국에서 『太乙紫金丹方』이란 단독의 서물이 존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책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紫金丹은 太乙紫金丹이란 이름으로 『外科正宗』, 『隨息居重訂霍亂論』에 수록되어 있으며, 太乙紫金錠이란 이름으로 『醫宗金鑑』에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⁵⁾. 그러나 『簡明方劑辭典』에 따르면紫金丹은紫金錠, 太乙紫金錠, 玉樞丹 등으로도 불리며, 南宋代 王璆이 1196년에 간행한 『是齋百一選方』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고 한다¹⁵⁾. 따라서 『東洋醫學大辭典』의紫金丹 혹은 『神仙太乙紫金丹』에 대한 기술에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차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처방 이외에도紫金丹이란 이름의 처방이 『普濟本事方』, 『丹溪心法』, 『醫學入門』, 『增補萬病回春』 등에 인용되어 있으나, 처방의 구성이 砒石, 豆豉, 黃臘 혹은 豬肉을 사용하고 있어서⁹⁾ 이 책에 나오는紫金丹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王璆의 『是齋百一選方』은 1196년에 최초로 간행되었지만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日本 寛政11년에 千田恭(子敬)이 본인이 소장하던 鈔本과 荻子元이 소장하던 元刻本을 상호 교정하고 『醫方類聚』에 나오는 王璆의 처방을 보충하여 편성한 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¹⁶⁾. 따라서 神仙太乙紫金丹이란 처방은 그 원류를 말하자면 王璆의 『是齋百一選方』이기는 하지만, 실제 李宗準이 이 책을 저작할 때는 『醫方類聚』를 원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존하는 『是齋百一選方』의紫金丹 부분과 『醫方類聚』『解毒門』에서 “是齋醫方”, “經驗祕方” 등에서 인용한紫金丹의 내용¹⁷⁾을 비교하면 『醫方類聚』가 더 李宗準의 『神仙太乙紫金丹方』에 가깝다. 그러나 “唐陳自明”으로 시작하는 太乙神仙紫金丹의 처방 원류에 대한 설명 등 일부 내용은 『醫方類聚』나 『是齋百一選方』에도 나타나지 않아서 李宗準이 이 책을 저술하면서 참고한 원본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紫金丹의 처방은 “山茨菰 去皮淨, 焙, 二兩. 文蛤(五倍子) 搥破, 洗焙, 淨秤三兩. 麝香 研, 三錢. 千金子(續隨子) 去殼, 研, 去油取霜, 一兩. 紅芽大戟 去蘆, 洗, 焙乾, 壹兩半”으로 구성되며, 이상의 약물을 “右除千金子, 麝香外, 三味末, 却入二味研藥勻, 用糯米濃飲爲劑, 於木臼內, 杵千餘下, 分爲四十粒, 合時宜端午, 七夕, 重陽日合, 或遇天德月德日亦佳, 要在淨室, 焚香至誠修製, 毋令婦人, 鷄犬見之.”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山茨菰, 文蛤, 麝香, 千金子, 紅牙大戟의 5종의 약물로 구성된 丸藥으로 제조법이 음력 5월 5일이나 7월 7일 등 重陽하는 날에 제조해야 하고 깨끗한 방에서 분향하고 여성과 개, 닭을 보는 것을 금하는 등 제조 과정이 복잡하고 禁忌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도 역시 전형적인 道家 계통의 처방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부분은 주치 증상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온 다음 복용법에 대한 내용이 따라서 수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Table 2에서 보듯이 구절마다 診解가 附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언해가 전혀 없는 셋째 부분과 일부 약물의 이름과 “別具湯使於後”라는 한 구절에만 언해가 붙은 첫 부분과는 달라서, 국어학자들이 매우 중요시 하는 부분이다^{16,7)}. 성암본의 경우가 부분에서 28면과 31면에서 2장의 缺落이 있어서 영인본에서는 그것을 교토본으로 보충하였는데, 일부 診解에 오류가 있는

부분도 있다¹⁾고 한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紫金丹의 주치 질환으로는 一切의 藥毒, 蠱毒, 瘴氣, 肉毒, 飲食毒과 癰疽, 發背, 惡瘡, 諸風癰疹, 小兒驚風, 陰陽毒, 傷寒心煩, 四時溫疫, 感冒, 瘧疾, 鬼胎, 鬼氣, 神昏譫語, 齒痛, 自縊, 溺死, 蟲獸傷, 湯火燒傷, 打撲傷, 頭痛, 癩疾, 中風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치 내용은 거의 『醫方類聚』에 인용된 “是齋醫方”, “經驗祕方”의 내용과 중복되며¹⁷⁾ 飲食毒, 黃腫, 神昏譫語 등 일부 내용은 후대의 醫家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복용법 내용은 『醫方類聚』¹⁷⁾나 『是齋百一選方』¹⁶⁾에서는 약의 製法 사이에 있는 내용이 별도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내용 중에서 “右每服一粒, 空心下, 侵晨早服, 見效又速”이라고 한 것은 『醫方類聚』나 『是齋百一選方』과 같은 책에서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다.

4.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의 의안

『神仙太乙紫金丹』은 판본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암본²⁾을 기준으로 하면 표지 내면까지 합하여 총 42면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교토본⁴⁾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하나 한독본은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李宗準의 醫案이 기록된 부분을 살펴보면, Fig. 4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筆寫本인 교토본은 기본적으로 刊本인 성암본을 模寫한 것으로 보인다. 성암본과 교토본의 글자의 수가 동일하며, 성암본의 마지막에 붙은 印章의 형태를 교토본에서 그대로 模寫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측에서 제 6행의 “正爲段段”을 교토본에는 “正爲段々”으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아 교토본은 성암본의 模寫本임이 명확하다.



Fig. 4. Medical record containing part of *Sinsuntaeuljagumdan*. A) Sungam version, B) Kyoto version

李宗準의 醫案은 기본적으로 “○昔有一女子”로 시작되는 중국 原著의 醫案에 한 단을 내려서 附記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의안 1) 僕初劑此, 內第進士權叔均, 患掌有風腫, 數年, 請試服之, 立消.

내가 이 약을 처음 제조했을 때 의사촌 진사 권숙균이 손바닥에 풍증이 수년간 있어서 시험 삼아 복용시켰더니 곧 나았다.

의안 2) 康興海伯珎, 來索之, 脇下暴腫, 一夕如杯盂, 鷄鳴磨服, 洞下四五度, 來朝而盡消.

홍해 군수인 강진이 와서 그 약을 찾았다. 옆구리가 갑자기 부었고 하루 저녁에 술잔만 해졌기에 새벽녘에 갈아서 복용하고 설사를 4-5회 하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두 나았다.

의안 3) 有孫萬戶者, 年幾八十, 卒中風, 語澁心癡. 康試與服之, 即愈. 子適到郡, 孫來, 并謝余.

손만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거의 팔십이었다. 갑자기 중풍이 걸려서 말이 잘 안되고 멍청해졌다. 강진이 시험 삼아 주어 복용시켰더니 즉시 나았다. 그 아들이 우리 고을까지 오고 손자도 와서 모두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였다.

의안 4) 尹永川壽泉妾, 得腹痕累月, 諸醫拱手, 尹來懇余, 試與之, 立愈.

영천의 윤수천이란 사람의 첩이 배속에 덩어리가 생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의사들이 모두 속수무책이었다. 윤씨가 나에게 와서 간청을 하기에 시험 삼아 약을 주었더니 곧 나았다.

의안 5) 藥族南美終者, 遍身湯灼, 縣吏金堅兒子, 火燒捐臂, 並幾邪. 依方磨搽, 有頃, 皆黃水流出, 乃愈.

얼죽인 남고종이란 사람이 전신에 걸쳐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을 입었고, 현의 아전인 김견의 아들은 화상으로 불에 팔이 데여서 거의 위태롭게 되었다. 이 처방을 갈아서 받았더니 얼마 있다가 누런 물이 흐르면서 곧 나았다.

의안 6) 老吏全春者, 中風口噤, 全身不遂, 三年. 余試餉之, 雖未永愈, 語音乃通, 喜甚. 乃引聲爲歌, 起而學步.

늙은 아전 전춘이란 사람이 중풍으로 말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를 삼년이였다. 내가 시험삼아 그것을 먹였더니 비록 완전히 낫게 하지는 못하였으나 말을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뻐하였다. 곧 소리를 내고 노래를 불렀으며 일어서서 걷기를 연습하였다.

의안 7) 記官金戒章者, 發背, 大如鉢, 邊厚而色黑. 乃服兩粒, 立消翌日, 來謁余而謝.

기관(記官) 김계장이란 사람이 등에 발배(發背)가 생겨서 크기가 바리때만 하였고 주변부가 두껍고 색이 검었다. 약 두 알을 복용하였더니 다음날 곧 나았기에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였다.

의안 8) 藥族權寅妻, 往隣舍路上, 卒中惡而絕. 權以曾徒余所得, 與服之, 卽生.

얼죽인 권인의 처가 이웃집에 가는 노상에서 갑자기 중악(中惡)으로 기절하였다. 권인은 예전부터 나를 따르면서[門徒] 얻은 것으로 복용시켰더니 곧 나았다.

고찰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李宗準의 醫案은 총 8종으로 紫金丹이란 하나의 처방을 사용한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소략한 편이다. 醫案의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回想式 醫案에 속하며, 병명이나 증상의 나열만 되어 있을 뿐, 진단의 근거나 치료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李宗準의 醫案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최초의 醫案이

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⁸⁾. 또한 전문적인 醫師가 아니라 양반 문인 관료가 쓴 의학적인 기록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조선전기 의서들이 대부분 官撰으로 저술된 것에 비해서 최초의 民間 醫學書라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본론에서 나타난 李宗準의 8개 醫案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의안 5의 경우는 하나의 醫案으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명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火傷이라는 동일한 병명으로 묶어둔 것이다.

Table 3. Summary of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의안	이름	직업	병명	투약
1	權叔均	進士	風腫	직접
2	康珎	興海伯	脇下暴腫	직접
3	孫○	萬戶	中風	간접
4	尹壽泉의 첩	-	腹癥	간접
5	南美終	-	火傷	직접
6	金堅의 兒子	縣吏	中風	직접
7	全春	吏	發背	직접
8	金戒章	記官	發背	직접
	權寅의 妻	-	中惡	간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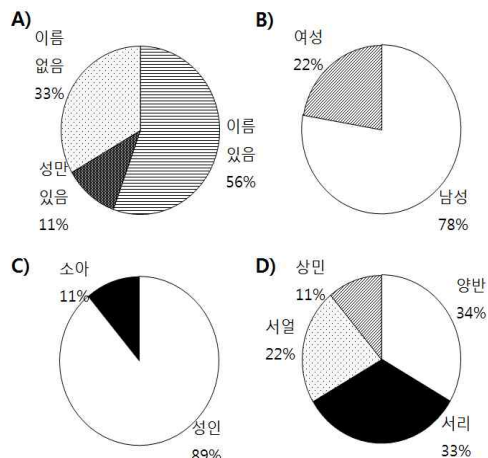


Fig. 5. Characters of patients in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李宗準의 醫案에서 나타난 환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Fig. 5와 같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의안이 그러하듯이 李宗準의 의안에서도 환자의 실명 혹은 그에 준하는 신상 정보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의안을 읽는 독자에게 좀 더 생동감과 신뢰성을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李宗準의 의안에 나타난 환자는 대부분 남자(78%)이거나 성인(89%)이었으며, 여성과 소아의 비율은 각각 22%, 11%에 불과하였다. 또한 환자의 직업 혹은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의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양반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의안 1, 2, 3에 나타나는 세 명 뿐이며, 대부분이 서리나 서얼과 같은 중인 계급이었다. 의안 4에 나오는 尹壽泉의 첩의 경우에는 천민으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첩에도 良妾과 賤妾의 구분이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아 상민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환자들 중에는 李宗準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의안 1의 權叔均은 의사촌이고 의안 8의 權寅의 妻는 제자의 부인이며, 康珎의 경우에도 같은 경사도에

부임한 동료 지방관으로 서로 평소에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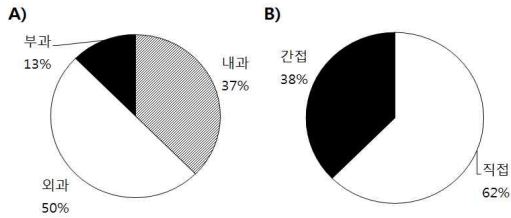


Fig. 6. Characters of treatments in Jong-jun Lee's medical records.

치료적인 특성으로李宗準의 의안을 분석하면 Fig. 6와 같다. 먼저 이종준이紫金丹을 투여한 용례를 살펴보면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風腫, 脇下暴腫, 中風, 腹癢, 火傷, 發背, 中惡 등의 질환이다. 그 중 中風의 경우 의안 3과 의안 6에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질환을 과별로 분류하면 風腫, 脇下暴腫, 火傷, 發背는 외과적인 질환에 해당하며, 中風과 中惡은 내과, 腹癢의 경우 여성의 생식기 질환으로 보아 부인과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외과가 50%, 내과가 37%, 부인과가 13% 정도로紫金丹을 외과적인 질환에 가장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神仙太乙紫金丹』의 본문에서도紫金丹의 주치 질환 중에 외과적인 내용이 많은 것과도 일치한다.

또한 저자는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醫師가 아니라 양반 관료였기 때문에紫金丹을 가정 상비용으로 손수 제작한 것 같다. 의안 1에서 “僕初劑此”라고 한 것과 의안 8의 뒤에 나오는 刊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試與之”, “試服之”, “來索之”, “試餉之” 등으로 볼 때, 가까운 주위 사람에게 투약하거나 알음알음으로 찾아온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약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안 3의 경우에는 찾아와서 약을 얻어간 康瑛이 다시 자신의 부하 관료인 孫萬戶에게 투여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의안 8에서도李宗準의 제자인 權寅이李宗準에게서 얻어서 평소 가지고 있던 약을 자신의 차에게 투약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의안 전체에서 이렇게 간접 투여한 경우가 전체의 38%에 달한다.

紫金丹의 처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君藥으로 쓰인 五倍子是 붉나무의 잎날개에 오매자진드기가 寄生하여 만들어진 蟲廩으로 性味が 寒酸澀하고 肺胃大腸經에 귀경하여 斂肺澀腸, 止血解毒한다¹⁸⁾. 山慈姑는 약난초의 假隣經을 건조한 것으로¹⁹⁾ 性味が 寒辛하고 肝胃經에 귀경하여 清熱解毒, 消癰散結한다¹⁸⁾. 大戟은 대극의 根을 건조한 것으로 性味が 寒苦하고 肺肝腎에 귀경하여 瀉水逐飲한다^{18,20)}. 續隨子是 속수자의 성숙한 종자를 건조한 것으로 性味が 溫辛하고 肺胃膀胱에 귀경하여 逐水消腫, 破癥殺蟲한다¹⁸⁾. 使藥으로 쓰인 麝香은 사향노루의 성숙한 雄體의 香囊중의 내분비물을 乾燥한 것으로 性味が 溫辛하고 心脾經에 귀경하여 開竅醒神, 活血通經, 消腫止痛한다^{18,19)}.紫金丹은 위 5개의 藥性이 峻烈한 藥物들의 배합을 통해 辟邪通竅, 解毒消腫^{15,20)}하는 效能을 갖추고 있다.

李宗準의 醫案에 나타난 병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안

1에서 나타난 風腫이란 浮腫의 종류 중 하나를 가리키거나 腫脹의 종류 중 하나를 가리킨다¹⁹⁾. 의안 1의 주증상인 ‘손바닥에 풍종이 있는 것’(患掌有風腫)에서는 손바닥에 부석부석한 감이 있고 살갓의 변화는 없으며 약간의 열감과 아픈 감이 있고 누르면 시원해지는 종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안 2에서는 ‘옆구리가 갑자기 부어서 하루 저녁에 술잔만 해졌고(脇下暴腫, 一夕如杯盃)’紫金丹 복용 후에 ‘설사를 4-5회 한 후(洞下四五度)’에 나온 것으로 볼 때, 내부 장기에 급성 화농성 질환으로 종창이 발생하였는데, 解毒消腫하는紫金丹 복용 후에 消癰散結되어 설사를 하면서 치료되었다고 생각된다.

의안 3에서는 ‘갑자기 중풍이 걸려서(卒中風)’, ‘말이 잘 안되고 멍청해진(語澁心癡)’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중풍 초기에 舌強語澁한 위급증에紫金丹의 辟邪通竅한 효능이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안 4의 주증상인 ‘腹癢’는 즉 ‘伏癢’로서 아랫배 속에 덩어리가 생긴 것으로, 大腸에 熱氣가 모여서 아랫배 속에 뜬뜬한 덩어리가 생긴 것¹⁹⁾으로 보인다. 기타 다른 증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변증은 어려우나, 熱證에 속하는 화농성 腫脹이紫金丹의 解毒消腫하는 효능으로 치료되었을 것이다.

의안 5에서는 ‘전신에 걸쳐 뜨거운 물에 데인 화상(遍身湯灼)’과 ‘불에 데인 팔(火燒捐臂)’에紫金丹을 外用하여 치료하였다.紫金丹의 약물구성 중 君臣藥인 五倍子, 山慈姑, 大戟의 性이 寒하고, 清熱解毒, 止血, 消癰하는 등의 효능으로 적절한 화상치료의 효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의안 6에서는 ‘중풍으로 말을 못하고 온 몸을 움직이지 못하기를 삼년(中風口噤, 全身不遂, 三年)인 환자에게紫金丹을 투여하여 말을 할 수 있고 일어나 걸기를 연습(語音乃通... 起而學步)하게 되었다. 뇌경색으로 중풍이 후유증기에 있던 환자에게紫金丹의 辟邪通竅하는 효능이 卓效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發背’란 등에 생긴 發疔을 일컫는데, 六淫의 邪氣를 받거나 內傷七情으로 氣血에 血毒이 뭉쳐서 생긴다¹⁹⁾.

의안 7에서는 발배의 ‘크기가 바리때만 하였고 주변부가 두껍고 색이 검었(大如鉢, 邊厚而色黑)’으나,紫金丹 2알을 내복한 후 곧 낮게 되었다. 기혈에 뭉친 血毒이紫金丹의 清熱解毒하는 효능으로 치료되었을 것이다.

의안 8에서는 ‘길에서 갑자기 中惡으로 기절(路上, 卒中惡而絶)’하였을 때,紫金丹이 救急藥으로 사용된 사례이다.

의안 1-8의 내용을 총괄하면,紫金丹은 解毒消腫하는 효능으로 熱性 腫脹(의안 1,2,4,7)의 내복약과 火傷의 외용약(의안 5)으로, 辟邪通竅하는 효능으로 급만성 중풍(의안 3,6)의 치료와 卒中惡(의안 8)의 救急藥으로 사용되었으며, 변증상으로는 熱證에 속하는 다양한 질환에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神仙太乙紫金丹』은 조선 전기의 양반 관료가 민간에서 간행한 의서라는 점에서 의학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으며, 그에 수록된 의안 8수는 한국 의안의 효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조선 전기의 문인 관료가 儒醫로서 행한 의료적 특성과 15세기의 민간 의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사료된다.

결 론

이상에서 『神仙太乙紫金丹』과 그에 수록된李宗準의 의안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저자李宗準은 조선 전기의 양반 관료로서 생몰연도가 1458년에서 1499년이며, 1497년 단오절에 『神仙太乙紫金丹』이란 책을 출판하였다. 현존하는 『神仙太乙紫金丹』은 모두 세 가지 傳本이 있는데, 성암본이 刊本으로 원본에 가장 가까우며 교토본은 성암본을 원형 그대로 筆寫한 模寫本이며 한독본은 원본을 축약하여 만들어진 筆寫本이다. 『神仙太乙紫金丹』은 조선 전기에 민간에서 刊行한 최초의 醫書라는 점과 전문의사가 아닌 양반 관료가 저술한 醫書라는 점에서 의학적 가치가 있다.

『神仙太乙紫金丹』은 처방의 구성과 제법, 주치 증상과 복용법, 醫話 醫案 및 刊記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상으로는 『醫方類聚』 「解毒門」에 인용된 “是齋醫方”, “經驗秘方”과 가장 유사하다. 『神仙太乙紫金丹』에 수록된 의안은 총 8수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醫案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紫金丹을 사용한 의안을 분석하면 解毒消腫하는 효능으로 熱性腫脹에 대한 내복약 및 火傷의 외용약으로, 辟邪通竅하는 효능으로는 급만성 중풍의 치료와 卒中惡의 救急藥으로 사용되었으며, 변증상으로는 熱證에 속하는 다양한 질환에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안병희. 『神仙太乙紫金丹』解題, 계간서지학보 6: 155-160, 1991.
- 안병희. 『神仙太乙紫金丹』影印, 계간서지학보 6: 162-203, 1991.
- 김신근. 韓醫藥書攷,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pp 113-115, 1989.
- 京都大學附屬圖書館所藏 富士川文庫 『紫金丹方』 <http://edb.kulib.kyoto-u.ac.jp/exhibit/f128/image/01/f128s0001.html>
-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동양의학대사전(6권), 서울, 경희대학교출판국, p 203, 1999.
- 정우영. <神仙太乙紫金丹>의 國語學的 연구, 東岳語文論集 28: 17-102, 1993.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집부.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은방 벽온신방(역주),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
-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醫門寶鑑』에 收錄된 醫案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회지 20(4):29-38, 2000.
- 하기태, 오정석, 양원미, 김준기, 최달영. 『醫門寶鑑』에 收錄된 周命新 醫案에 대한 研究,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3(1):162-186, 2000.
- 박운성, 하기태, 김준기, 최달영. 『東醫寶鑑』 內景篇에 수록된 의안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6):1457-1470, 2005.
- 서영민, 하기태, 김준기, 김장현. 『及幼方』에 수록된 醫案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1(1):18-27, 2007.
-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넷 - 역사문화관, 유적정보, 경광서원. <http://www.ugyo.net/tu/rin/ruins.jsp?sSiteCode=ansb007>
- 이 황. 活人心方, 서울, 예문서원, 2007.
- 江克明, 包明蕙 編著. 簡明方劑辭典(2版),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 1249, 2002.
- 王 璆 著. 王伊明 点校, 是齋百一選方,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 김례몽 等編. (原文)醫方類聚, 서울, 驪江出版社, 1994.
- 전국한의학대학교 본초학교실, 本草學, 서울, 永林社, 1991.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동의학사전, 서울, 까치, 1998.
- 申載用. 方藥合編解說, 成輔社, pp 504-506, 1988.